

# 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세 전남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영세한 전남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일까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

정안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km 이내를 조업 금지구역으로 묶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되게 됐다.

첫째로 조업을 하는 근해(빨판대) 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과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첫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대형 저인망 어업은 멀지포획을

금지하며 기선권현망은 멀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게 규정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도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이 보장돼 어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개정 입법예고안은 일부 미흡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식품부와 합의를 도출해나갈 것"이라며 "또

연안 영세어업인들의 안정적 어가소득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치어 방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조업구역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입법예고 후 4월말 규제심사, 5월말 법안심사를 실시한 후 6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과학 체험하고 마술쇼 관람하고

### 여수서 '과학나눔' 행사

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체육관에서 '과학나눔 창'의 세상 속으로 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수학·과학 체험 한마당(사진)이 열렸다.

전남대 여수시생활과학고교실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지역 초·중학생과 학부모 2000여 명이 참여해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 마술쇼 공연 등을 관람했다. 특히 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별 계층별 과학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한 몫 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과학나눔'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STEAM융합올림픽 3종 경기와 함께 3색 LED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

로 꾸며졌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학 마술쇼 공연까지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여수시생활과학고교실 사업단장인 전남대 이식 교수는 "과학기술 융합의 최신 이슈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의성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전남대 여수시생활과학고교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최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전남대가 공동 주관하고 복권위원회, 여수시, GS칼텍스 등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lm1@

## K-water 여수관리단, 무사고 안전 기원제

K-water(수자원공사) 여수관리단(단장 김봉수)은 최근 계사년 한해 수어댐 및 관역상수도 시설물,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의 무사고와 무재해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지냈다.

(사진)



이날 안전기원제는 순천·여수·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여수사무소의 무사고에 대한 염원이 담긴 재배를 시작으로 2013년 무재해 20대 달성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로 마무리됐다.

김봉수 단장은 "겨울철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해빙기에는 어느 때보다 수도사고 및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지역주민에게 중단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전남문화재단, 내달 2일부터

(재)전남문화예술재단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매주 토요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요문화학교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청소년과 가족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목포·나주·광양·영광 등 도내 12개 시군, 18개 단체가 참여한다.

나주문화원은 전남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흥어를 소재로 흑산도에서 영산강까지 흥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지역의 문화와 생태를 아우르는 '영

산강 흥어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 채동선합창단은 민족음악가 채동선의 작품을 재해석하고 합창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담양문화예술발전소는 담양의 대표적 브랜드인 대나무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광양 장도박물관에서는 장도 제작과정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가족과 함께 염색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참가 희망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남문화예술재단이나 각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봄 기운 물씬... 쟁기질 하는 농부

장흥군 용산면 포곡 산골마을에서 27일 오전 한 농부가 소를 이용해 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밭갈이 쟁기질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광양 백운장학회 수혜자 선정 의문

### 홍보안돼 일부에만 혜택 집중

### 기금 출연 기업 부담 느끼기도

광양시 백운장학회의 기금 출연에 지역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수혜자 선정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등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출범한 광양 백운장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211억5000여만원의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장학 기금의 출연과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수혜자 선정과 선정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

가 안 되면서 일부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정모(55)씨는 "아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 고민하다가 백운장학회를 알아봤는데, 선정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며 "누구를 어떻게 수혜자로 선정하는 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금 출연 역시 시는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지만 시의 사업과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부 업체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선의 시장이 재임기간 역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까지 장학금 기금조성에 동참하면서 일각에서는 무리수

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기업인 A씨는 "광양에서 사업을 하며 백운장학회를 몇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내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시 행정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낸 경우도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장학회 운영은 자발적 참여가 기본 원칙이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국 지자체 장학회 운영의 모범사례라고 할 정도로 기본 원칙을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운장학회는 올해 지역출신 347명의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6억 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박종진의**  
**캐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의**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 CHANNEL A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나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울 300곳으로

## 이웃간 정 나누고 공동체 문화 조성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나주시의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농민들이 바쁜 농사일을 보면서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한 데 모여 식사하면서 마을 일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는 27일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조례를

제정해 급식사업을 시작했던 나주시는 2010년 60곳에서 2011년 175곳, 2012년에 215곳에 이어 올해에는 300개 마을로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들어 임성훈 시장이 "농촌지역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해 농업인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데다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는 늘고 있어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15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농번기(4~6월) 가운데 20일 동안 공동급식을 준비할 조리인력의 인건비 4만원과 급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모여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이웃간 정을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다.

시는 올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마을 300곳(상·하반기 각각 150개소)을 선정하기로 하고, 읍면동을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희망마을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